군산 지역의 유교 전통과 그 특징*

박학래**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성리학적 지식인의 정착과 節義 精神의 착근
3. 문무 관료의 배출과 사림정신의 扶植
4. 忠義의 실현과 畿湖學脈의 移植
5. 道學 系列 門人의 번성과 유교 문화의 계승
6. 유교 윤리의 착근과 확산
7. 맺음말

[초록]

대체적으로 역사 문화의 전통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지역학 연구의 흐름 속에서 전북 군산도 '군산학'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하지만 군산학은 개항 이후 본격화하는 근대문화에 주안점을 두고 그 관심과 연구열을 제고하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근대 이전의 전통 시대에 펼쳐졌던 다채로운 문화 전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관심과 연구열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 지역은 일찍부터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자리 잡은 곳이었으며, 특히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 호남의 여러 지역과 비견할 만한 유학 전통이 뿌리 내린 곳이었다. 따라서 군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재문화화하기 위해서는 근현대에 한정된 관심을 확대하여 전통 시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통 시대 군산 지역의 유학 전통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접근을 시도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군산 지역의 유학 전통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으며, 그러한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적 면모는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20세기 초반 일제강점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유림들에 의해 간행된 지방지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 철학전공 교수, phr@kunsan.ac.kr

기타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적 실체를 확인하였다. 특히 본고는 군산 지역의 유학 전통에 대한 조망을 통해 군산 지역에 일찍부터 유교 문화가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작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근현대에 치중된 군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주제어] 群山學, 군산, 沃溝, 臨陂, 유학 전통, 지역공동체

1. 들어가는 말

이제는 낯설지 않은 지역학이라는 범주가 정착됨에 따라 각 지역마다 지역 나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뿌리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역사 문화의 전통 하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학 연구의 흐름 속에서 군산 지역도 '群山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하지만 군산학은 개항 이후 본격화하는 근대문화에 주안점을 두고 군산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열을 제고하는 경향이 짙고, 더불어 근대문화유산과 관련한 관광 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근대 이전의 전통 시대에 펼쳐졌던 다채로운 문화 전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관심과 연구열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 지역은 선사 시대의 유물이 다수 분포할 정도로 일찍부터 사람살기 좋은 고장이었으며,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요충지이자 물산의 집산 내지 유통지로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자리 잡은 곳이었다. 따라서 군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재문화화하기 위해서는 근현대에 한정된 관심을 넓혀 전통 시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군산학 연구와 관련하여 근현대에 한정된 관심과 연구를 그 이전시대로 소급하여 보다 명확한 군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구도되었다. 지역 주민 내지 일반인에게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성된 근대 문화유산만이 자리한 곳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풍부한

문화 전통을 간직한 곳 중 한 곳이 군산 지역[1]이라는 점과 전통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전통인 유교 문화에 주목하여 그 대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정리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본 연구 이전에도 전통 시대 군산 지역의 유교 전통에 대한 연구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2] 하지만 기존 연구는 군산의 유교 전통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특정 주제나 내용에 한정된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군산의 유교 전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 시대 군산 지역의 유교 문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3]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군산 지역의 유교 전통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러한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적 면모는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20세기 초반 일제강점기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림들에 의해 간행된 지방지와 기타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적 실체를 확인하고자 한다.[4] 이러한 군산 지역의 유교 전통의 조망을 통해 군산 지역에 일찍부터 유교 문화가 뿌리를 내렸

1) 본고에서 검토하는 '군산 지역'은 전통 시대의 '옥구현'과 '임피현'을 포함한 현재의 군산시 전역을 가리킨다.

2) 전통 시대와 연관된 선행 연구로는 김두헌, 2010, 「제주 고씨의 옥구 입거와 이후의 거주지 이동」, 『전북사학』 36; 김두헌, 2013, 「과거 시험과 군산의 유교문화」, 『군산의 역사와 문화』, 군산대학교 박물관; 김두헌, 2013, 「平康 蔡氏의 臨陂 入居와 入居 이후의 거주지 이동」, 『東洋學』 53; 김승대, 2018, 「죽봉 고용집의 가계 분석과 교유 인물」, 『전북사학』 52 등을 들 수 있다. 구희진, 2014, 「근대개혁기 옥구, 군산항 인근지역의 교육과 사회변화」, 『전북사학』 44; 구희진, 2018, 「1920년대 초 군산사회와 교육운동」, 『전북사학』 54 등에서도 전통 시대 군산의 유교 문화가 일부 소개되었다.

3)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2002년 기초학문육성과제인 「호남문화 자료 조사와 문화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군산 지역의 儒賢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전북지역 유현의 지역별 분포를 정리하면서 "군산시 유현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인물은 고경, 채양생, 고용현, 임병찬, 고순겸(고돈겸의 異名) 등이다. 이를 기초로 군산시 유현들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선정하지 못하였다."고 기술하고 다른 지역과 달리 군산 지역의 유현을 0명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례에서 보이듯이 전문 연구자 집단, 특히 호남 지역 내 유학 연구자들의 군산 지역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미하다.

4)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군산의 임피 및 옥구 지역의 유림들은 향교를 중심으로 지방지 간행에 착수하여 『臨陂邑誌』(1921)와 『沃溝郡誌』(1924)를 간행하였다. 일제강점기라는 제한 속에서도 지역의 역사를 정리하고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정리된 이 지방지들은 군산의 지역민의 시각에서 지역 전통을 집산하였다는 점에서 日帝에 의해 간행된 「群山府史」(1935)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지방지의 간행 목적 및 의의, 특징에 대해서는 별고로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작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근현대에 치중된 군산 지역의 정체성을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성리학적 지식인의 정착과 節義 精神의 착근

군산 지역의 유교 전통은 대체적으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崔致遠(857~?)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5] 향촌 사회에 유교가 구체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라 할 수 있다. 문헌으로 확인되는 고려 시대의 군산 지역 유교 전통은 특정한 인물을 통해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대체적으로 12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확인된다.

12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옥구를 지역적 배경으로 성장하여 중앙 관료로 활동한 인물로는 옥구 임씨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文敬公 林槩(?~1107)와 그의 아들 林有文(1056~1125)을 손꼽을 수 있다.[6] 이들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유교적 기풍을 조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헌 자료로 확인할 수 없지만, 과거를 통해 입신했고, 출생지 및 성장지가 군산의 옥구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유학적 소양을 익힐 만한 분위기가 지역 내에서 조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이외에 이 시기에 주목되는 인물은 군산 지역의 유력 가문 중 하나인

---

5) 최치원의 출생지와 관련하여 여러 異說이 있지만, 일찍부터 군산의 儒林을 비롯한 지역민들은 최치원의 시호인 文昌侯의 '文昌'이 군산의 옛 지명인 文昌縣이라고 이해하였으며(『沃溝郡誌』 卷2, 1a, '儒林'條, "先生生于文昌, 文昌本郡古號也."),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산 지역 내에 건립된 서원 가운데 文昌書院과 玉山書院, 廉義書院, 賢忠壇 등에서는 최치원을 주벽으로 배향하여 매년 제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군산 지역 내에서는 지역의 유교 전통이 최치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4, 「沃溝縣」의 '人物'條에는 林槪에 대해 "맑고 곧으며 청렴하고 조심하여 大臣의 위엄이 있었고, 順宗・宣宗・獻宗・肅宗・睿宗의 다섯 조정을 대대로 섬기어, 벼슬이 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元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林有文에 대해서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문하시랑 평장사에 이르렀다고 서술하고 있다.

제주 고씨의 입향조인 高惇謙이다. 그는 고려 인종 대에 仕宦을 시작하여 고종 대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옥구 지방으로 유배되었고, 결국 解配되지 못한 채 그의 아들 高瑩中(1131~1208)과 함께 옥구에 시거하게 되었다. 이들이 군산 지역에 시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 유교적 기풍이 뿌리를 내리기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돈겸의 군산 지역 내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직계 자손들이 연이어 과거에 급제하여 고위 관직을 역임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군산 지역의 제주 고씨 가문 내에서 유교적 소양을 키우는 교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7] 더구나 고돈겸의 저작으로 알려진 「王源墓誌銘」[8]을 비롯하여 그의 시문 「龍藏寺獨妙樓」가 『東文選』에 수록되어 제주 고씨 가문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유현들에게 지속적으로 읽혀졌다는 점에서 그의 위상과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9]

12세기 전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고려시대의 군산 지역 내 유학적 기풍은 대체적으로 고려의 유교 전통과 맞물려 사장학을 중심으로 한 경학적 학풍이 주류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거론한 고돈겸의 시문 이외에 그의 자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여러 인물들이 과거를 통해 出仕하였다는 것은 과거 시험을 위해 유학 경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였고, 文士로서 문장에 대한 능력을 배양했을 것으로 짐작하게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려 중기까지의 유학적 면모가 대체적으로 경전의 자구에 대한 이해 및 사장류의 문장에 주목하였던 면모가 군산 지역의 유풍에도 상당한 영향을 추었다고 할 수 있다.

13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元으로부터 주자학이 도입 수용되면서 고려 유학은

---

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4의 「沃溝縣」의 '人物'條에는 高瑩中이 고려 毅宗 조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國子司業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8) 「王源墓誌銘」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저작 하단의 '辛卯年[重光單閼](明宗 1, 1171) 12月[冷月] 2일[蓂開二葉日], 文林郎 中書注書 高惇謙이 지었다.'는 기록을 통해 그의 저작임을 확인할 수 있다.

9) 「용장사독묘루」는 후손들에게 널리 읽힌 것으로 확인된다. 후술하겠지만 조선 후기 군산 지역의 대표적 유학자 중 한 사람이자 후손인 고용집은 「奉次先祖文英公龍藏寺獨妙樓韵」을 지었다.(『죽봉시문집』, 회상사, 2016, 90쪽) 다만 고용집은 「龍藏寺獨妙樓」가 高用賢의 작품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시 제목에서 '선조 문영공'은 고돈겸이 아니라 고용현의 시호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군산 지역의 유학 기풍도 이와 연관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休翁 高慶(?~1326)[10]을 비롯하여 고려 말 군산을 지역적 배경으로 한 여러 유현들의 행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경에 대한 행적은 『沃溝郡誌』, 『臨陂邑誌』를 비롯한 지방지와 여러 문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1] 『옥구군지』에 따르면, 그는 일찍부터 학문적 재능을 인정받았고, 과거를 통해 중앙 관료로 현달했을 뿐만 아니라 문장과 덕업이 출중하여 그 명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牧隱 李穡(1328~1396)과 圃隱 鄭夢周(1338~1392)가 師傅로 대접할 정도로 그 학문적 위상이 남달랐다.[12] 이 기록 가운데 이색 및 정몽주와 관련한 기록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없지 않다. 고경 생존 당시에는 이색이나 정몽주가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유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고경을 사부로 대접했다는 것은 그의 아들 野叟 高用賢(1302~?)의 행적과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冶隱 吉再(1353~1419)의 기록에 따르면, 고경은 옥구 翰林洞[13]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였고, 학문적 능력이 뛰어나 17세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아명은 自平이었으나 충숙왕이 어진 신하를 등용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用賢'으로 고치라고 하여 개명하였다. 고려 말 네

10) 고경의 생년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몰년은 길재가 남긴 그의 아들 고용현의 행록인 「高文英公實行錄」(『冶隱先生續集』 卷上, 3a~5a)을 통해 확인된다. 이 글에서 고용현은 '大匡輔國 崇祿大夫 玉城君 文忠公 休翁諱慶之子'로, '병인년(1326) 봄에 아버지 상을 당했다.(丙寅春, 丁外艱)'고 각각 기록되어 있다.

11) 고경의 시호에 대한 기록이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보인다. 이 책 「人事篇」의 '人事類, 諡號' 중 「諡法本末辨證說」에는 "文英, 高麗濟陽伯高慶, 諫議同知高用賢."이라고 기록하여 고경과 그의 아들 고용현이 모두 '文英이라는 시호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자료에는 고경의 시호는 文忠으로 기록되어 있다.

12) 『沃溝郡誌』 卷2, 1a, '遺賢'條; 『臨陂邑誌』 卷下, 1a, '遺賢'條.

13) 길재는 한림동이 고용현의 9세조 이하가 세거한 곳이라고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의 5대조인 고돈겸부터 옥구 한림동에서 세거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길재의 기록은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현에 이르기까지 9대에 걸쳐 翰林을 배출하였기 때문에 길재가 "공의 9세조 이하가 세거한 곳으로 대개 한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동명이 된 것(公之九世以下世居之遺址, 而世爲翰林, 因以爲洞名者也)."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길재의 기록은 후대까지 영향을 미쳐 愼獨齋 金集은 "九世淸風百世師"(『沃溝郡誌』 卷2, 1a, '遺賢'條 중 '高慶')라고 기록하였다.

명의 왕(충숙왕,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을 섬기면서 충성하는 마음이 마치 夏나라 桀의 신하 關龍逢과 殷나라 紂의 신하 比干과 같은 기풍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14] 새 왕(공민왕)이 등극하는 초기에 옥구의 동쪽인 蓼花堤 위의 한림동에 은거하였다.[15] 고향으로 은거한 후 그는 산에서 나무하고 물에서 고기를 낚으며 '野叟', 즉 들판의 늙은이를 자처하며 왕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았다.[16] 자신은 왕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았지만, 고용현은 말년에 자손들에게 "군주의 명이 이처럼 인자하고 잦은데 우리 집 조상과 자손이 모두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어찌 신하의 도리겠는가? 나는 나이도 늙고 뜻도 결정되었음을 너희들이 아는 바다. 너희는 반드시 출사하여 임금을 도와 충성으로 섬기는 것이 어찌 온당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자신의 뜻을 밝혔고,[17] 이후 그의 자손은 출사하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고경의 행적이 길재에게 주목받은 것은 조선 개창 후에 길재의 처신과 관련이 깊다. 길재 자신은 비록 절의를 지켜 불사이군의 정신을 실천하였지만, 그의 자손과 문인들에게는 새 왕조를 섬기라고 훈계하였다.[18] 자신의 고려에 대한 충정과 새로운 왕조에 대한 자손들의 출사를 구분한 길재에게 그 전거로서 고용현의 행적, 즉 공민왕 이전의 왕들에게 충성을 다한 후에 자신은 의를 지키기 위해 은거를 선택하였지만, 그의 자손에게 출사할 것을 권한 것이 주목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길재는 고용현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그의 출사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길재의 저술에서 주목되는 것은 「誄高野叟文英公」의 내용인데, 길재는 이 誄文을 통해 고용현의 명성이 이색과 부합하고, 학문이 정몽주와 합치된다고 규정하였다.[19] 그만큼 고용현의 학문적 명망이 여말 성리학자를 대표할 만

14) 『冶隱先生續集』 卷上, 4a, 「高文英公實行錄」, "蓋公歷事四朝, 忠君之心, 庶幾有夏逢殷干之風焉."
15) 『冶隱先生續集』 卷上, 4a, 「高文英公實行錄」, "新王御極之初, 退居于玉山之東, 蓼花堤上翰林洞是也."
16) 『冶隱先生續集』 卷上, 4a~b, 「高文英公實行錄」, "晦跡以後, 衣葛杖藜, 樵山漁水, 以野叟自處, 而每吟淸聖之薇歌, 時覽靖節之菊史, 則殷之首陽, 晉之栗里, 卽今翰林洞乎. 屢以領相命召, 而辭卧不出矣."
17) 『冶隱先生續集』 卷上, 4b, 「高文英公實行錄」, "末乃戒子若孫而語之曰, 君命若是諄複, 而吾家祖子孫, 俱不赴命, 則是豈臣子之道理哉. 吾年則老, 吾志則決, 若曺所知也. 若曺須卽出仕翊聖, 事之以忠, 豈非穩藉底大體乎? 於是子若孫承訓赴職."
18) 길재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김용헌, 2016, 「야은 길재의 두 가지 표상」, 『한국학논집』 65 참조.
19) 『冶隱先生續集』 卷上의 「誄高野叟文英公」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하늘이 낸 영특한 인재, 순절하여

하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고용현의 부친인 고경을 이색이나 정몽주가 사부로 대접했다는 것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말 고용과 고용현이 중심을 이룬 군산 지역의 유풍은 자연스럽게 절의를 지키는 의리적 기풍이 지역 내에 자리 잡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색과 정몽주에 비견되는 학문과 명성을 갖추었던 고용현이 말년에 군산 지역에 은거하면서 스스로를 야수로 자처하였지만, 그의 학자적 위상에 비추어 그 영향을 작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의를 실현한 인물로 길재에게 주목받았다는 것은 성리학의 도학적 절의 정신을 체화한 인물이 고용현이고, 그의 근거지가 군산 지역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산 지역은 의리적 기풍이 깃든 곳으로 세간에 비쳐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여말 선초에 불사이군의 정신을 바탕으로 군산 지역에 은거한 여러 인물, 그리고 성리학의 학맥을 계승하여 학문적 성취를 이룬 학자 등을 통해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불사이군의 절의 정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로는 蔡陽生(1340~?)과 그의 아들 蔡王澤, 松隱 張安世와 그의 아들 張仲陽(1365~?)을 위시하여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 인물로는 姜元鐫(1350~?)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은 여말선초에 군산 지역으로 이거하여 절의 정신을 몸소 실현한 인물이거나 선진적으로 성리학을 익힌 인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 지역의 평강 채씨 입향조인 채양생은 과거에 급제한 후 禮曹參議, 軍器少監 등을 지낸 후, 고려의 국운이 쇠망하는 것을 보고 불사이군할 것을 다짐하고 남쪽으로 배를 타고 와 임피의 북쪽 香林僧舍에 은거하였다.[20] 정몽주, 이색과 더불어 殷의 三仁[21]에 비견된다고 평가되었던[22] 채양생은 고

충성을 바쳤네. 그 명성은 목은과 부합하고, 학문은 포은과 합치되네. 도덕은 후세의 스승이요, 문장은 동방을 울렸네. 혁명하는 때를 당하여 의를 안고 마치시니 채미가 그 한 곡조 고금의 맑은 기풍일세. 인간의 삼강오륜 그 한 몸에 매었는데 공이 먼저 가셨으니 어느 곳에 같이할꼬?"(天挺人英, 殉節效忠. 名符牧老, 學契圃翁. 道乃指南, 文以鳴東. 際是革命, 抱義以終, 薇歌一曲, 古今淸風, 三綱五常, 都繫一躬, 公旣先逝, 何處歸同.)

20) 『臨陂邑誌』 卷下, 2a, '節義'朝.

21) 殷의 三仁은 紂의 庶兄인 微子와 숙부인 箕子와 比干을 가리킨다. 미자는 주의 무도함을 보고 떠나가서 宗祀를 보전하였고, 비간은 간하였는데 죽음을 당하였으며, 기자는 거짓 미치광이 노릇을 하며 洪範九疇를 전하였다.

려의 恩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아들 이름을 王澤으로 하였으며,[23] 그의 채왕택은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으로 은거하여 생을 마감하였다.[24]

채왕택 부자 이외에 옥구 지역에는 장안세와 장중양이 은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5] 장안세는 德寧府尹으로 재직할 때 이성계와 인연을 맺었지만, 조선이 개국하자 옥산으로 물러나 관직에 나가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 장중양 또한 이성계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의리를 지켰다고 전한다.[26] 이밖에 군산 지역의 진주 강씨 입향조인 姜元鐫도 全羅御史를 역임한 후 누차에 걸쳐 징소에 응하지 않고 옥구의 회현에 은거하며 절의 정신을 실천하였다.[27] 특히 그는 여말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禹倬과 함께 학문적 명망이 높았던 申賢(1298~1377)에게서 수학한 만큼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절의정신과 함께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28]

---

22) 『臨陂邑誌』 卷下, 2b, '節義'朝, "先生與鄭圃隱李牧隱二先生, 俱方於殷之三仁, 少無愧焉."

23) 『臨陂邑誌』 卷下, 2a, '節義'朝, "改錫其胤中賁 侍衛司領護軍名, 曰王澤, 謂王氏之澤未斬也."

24) 채왕택이 두문동에 은거한 사실은 『騎牛先生文集』 卷2, 「杜門洞七十二賢錄」, 『貞齋先生逸稿』 卷3, 「海東忠義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杜門洞七十二賢錄」에는 채왕택이 고려조에서 領護軍을 지냈고, 고려가 망하자 浮海하여 남으로 가 임피에 은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蔡王澤, 領護軍, 麗亡, 浮海而南, 隱居臨坡.", 『騎牛先生文集』 卷2, 15a, 「杜門洞七十二賢錄」)

25) 장안세에 대한 기록은 『沃溝郡誌』 권2, 1a, '遺賢'條에, 장중양에 대한 기록은 '遺逸'條에 각각 실려 있다.

26) 장안세 및 장중양 부자와 군산 지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 지역에서는 옥구읍 옥정리에 장안세의 묘가 실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인동 장씨 문중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 지역 유림들은 장안세가 두문동에 은거한 후 玉山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옥산이 옥구의 옛 지명이기 때문에 군산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동 장씨 문중에서는 옥산은 인동의 옛 지명이라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향후 세밀한 확인 작업이 요청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군산 지역의 유림들은 장안세 부자를 지역의 유현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리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7) 『沃溝郡誌』 卷2, 42a~b, '仕宦'條.

28) 우탁과 신현의 학문에 대해서는 오석원, 1992, 「易東 禹倬의 생애와 사상」, 『禹倬 先生의 思想과 易東書院의 歷史』, 안동대학교 참조.

3. 문무 관료의 배출과 사림정신의 扶植

여말 선초를 지나면서 절의 정신이 깃들었던 군산 지역의 유풍은 선초를 지나면서 새 왕조에 참여하는 유현들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5세기 전반기에 활약한 文獻은 이색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힌 후 세종 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전주판관을 역임하였으며, 경상도 단성(丹城)에서 옥구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진다.[29] 吳自和 또한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한성판윤에 이르렀고, 그의 아들 吳軾도 벼슬이 한성좌윤에 이르렀다.[30] 강원전의 아들인 姜自文(1370~?)은 무과에 급제한 후 나주목사를 역임하며 선정을 베풀었다고 전해지며,[31] 재당숙인 채양생과 함께 임피로 옮겨와 세거한 蔡智生(1380~?) 또한 나주목사를 역임하였고,[32] 채왕택의 아들 蔡孝順(1410~?) 또한 사환하여 관직이 이조참의에 이르는[33] 등 절의파 유현들의 후손들은 조선 왕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유풍을 전환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밖에 군산 지역의 경주 김씨 입향조인 金生水는 비록 문과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성균관에서 학문을 익히는[34] 등 지역의 여러 유현들은 지역 내에 관학적 기풍을 부식하는 데 일조하였다.

조선 전기부터 본격화하는 지역 내 인사들의 사환에 따라 지역 내 유풍은 주로 과거와 관련한 기풍이 주조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호조참의를 지낸 文孟保를 위시하여 문과 급제 후 정언과 응교 등을 거쳐 외직에 나간 金永補, 성종 조에 나주목사와 대사헌 등을 역임한 金自珍과 대제학을 지낸 金自武, 성종 조에 장령을 지낸 田允平(1455~1505), 병조참의를 역임한 高義忠, 교리를 지낸 文孟光, 고부군수를 역임한 金珝, 낙안군수를 지낸 潘岑 등 적지 않은 인사들이 군산을 지역적 배경으로 성장하여 관료로 입신하였다.[35]

---

29) 『沃溝郡誌』 卷2, 42b, '仕宦'條.
30) 『沃溝郡誌』 卷2, 42b~43a, '仕宦'條. 오자화는 군산 지역의 長興吳氏 입향조이다.
31) 『沃溝郡誌』 卷2, 43a, '仕宦'條.
32) 『臨陂邑誌』 卷下, 33a, '仕宦'條.
33) 『臨陂邑誌』 卷下, 33b, '仕宦'條.
34) 『沃溝郡誌』 卷2, 43a, '仕宦'條.
35) 『沃溝郡誌』 卷2, 43a~44a, '仕宦'條.

이러한 상황 하에서 주목되는 것은 문관 이외에 무관으로 입신하는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두릉 두씨 입향조인 杜承孫(1400~?)이 태종 조에 兵馬虞候를 지낸 것[36]을 비롯하여 그의 손자인 杜憲은 성종 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禦侮將軍에 제수되었으며,[37] 그의 아들 杜思順 또한 무관으로 비인현감을 지냈다.[38] 문인 관료인 姜自文과 달리 그의 아들 姜義는 무과에 급제하여 僉節制使를 지냈으며, 문관이었던 金自珍의 아들 金泥도 무과에 급제한 후 관직이 병조참의에 이르렀고, 고의충의 아들 高敬池가 경상좌도 병마우후를, 김영보의 아들 金石仝이 무과에 급제한 후 함경도우후를 각각 역임하는 등 문관에서 무관으로 전향하는 경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에 이르러 관료로 입신하는 지역 내 인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목되는 흐름은 이른바 사림파 학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문인 학자들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산 지역은 여말선초를 거치면서 불사이군의 절의정신을 바탕으로 은거한 학자들이 다수 자리를 잡았던 만큼, 절의파 학자들의 학문적 입장을 계승하는 사림파 학자들의 흐름이 지역 내에 구체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군산 지역 내에서는 성종 때 사환한 姜應周, 姜尙周 형제가 김굉필의 문인이라고 이해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재고될 필요가 충분할 정도로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39]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굉필의 문인이자 사림의 영수로 평가받는 趙光祖를 위시한 己卯名賢의 영향이 지역 내에 일정 정도 자리 잡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

36) 『沃溝郡誌』 卷2, 42b, '仕宦'條.
37) 『沃溝郡誌』 卷2, 43a, '仕宦'條.
38) 『沃溝郡誌』 卷2, 44b, '仕宦'條.
39)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는 군산 지역 출신의 姜應周를 金宏弼의 문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디지털군산문화대전〉에도 강응주와 함께 그의 동생 姜尙周도 김굉필의 문인으로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시스템에서 강상주의 생년을 1430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스승으로 소개한 김굉필의 생년은 그보다 24년 뒤인 1454년이기 때문이다. 『沃溝郡誌』 卷2의 '忠勳'條에 소개된 강응주의 간략한 전기에 따르면, 강응주는 성종 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司果에 올랐다. 성종 재위 초기가 1470년대라는 점에 비추어 1430년이라는 강응주의 생년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다분하다. 따라서 그동안 군산의 유현인 강응주와 강상주가 김굉필의 문인이라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로 기묘명현의 한 사람이 自庵 金絿(1488~1534)를 거론할 수 있는데, 그는 기묘사화로 開寧에 유배되었다가 죄목이 추가되어 남해로 이배된 후 13년 만에 군산의 임피현으로 이배되어 일정 기간 이 곳에 머물렀으며,[40] 유배 중이기는 하였지만 그의 지역 내 유림에 대한 영향은 상당한 것이었다.[41]

김구 이외에 기묘명현과 일정한 교유 관계를 유지하였던 옥구 출신의 문인 학자인 松崖 潘碩枰(1472~1549)도 주목할 만하다.[42] 신분적인 한계를 딛고 8도 감사를 역임하는 등 관료로 크게 현달한 그는 군산의 옥구에서 나고 자랐으며, 부친 潘瑞麟의 묘가 옥구 인근의 회현에 있었던 만큼 지역 유림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만큼[43] 출사 이후에 조광조와 金湜 등 기묘명현들과 교유하면서 신진 사류로서 그 위상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군산 지역 내에 사림정신을 부식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44] 이밖에도 폐비 신씨의 복위를 주도한 朴祥도 일찍이 임피현령을 역임하였다는 점에서 군산 지역의 사림정신 이식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4. 忠義의 실현과 畿湖學脈의 移植

사화기를 거치면서 사림정신의 부식된 군산 지역은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충의를 실현하는 다수의 인물을 배출하며 유학적 기풍을 진작하였다. 특

40) 金絿는 1531년(중종 26)에 臨陂縣으로 量移되어 1532년(중종 27) 4월까지 1년여를 임피에 머물렀다.(『自菴集』 紀年, 4a, 「自菴紀年錄」 참조)

41) 1664년(현종 5) 임피에 鳳巖書院이 건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666년 임피의 유림들은 김구를 愼獨齋 金集과 함께 배향하였다. 高用楫, 2016, 『竹峯詩文集』, 「鳳巖書院開基祭文」, 회상사, 307~308쪽.

42) 반석평에 대한 간단한 전기는 『沃溝郡誌』 卷2, 46a, '仕宦'條에 실려 있다.

43) 해방 이후까지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반석평의 부친인 潘瑞麟의 묘는 얼마 전에 그의 후손들에 의해 충북 음성군으로 이장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44) 17~18세기 임피의 대표적인 유학자 중 한 사람인 高用楫은 「鳳巖書院序」를 통해 배향인물인 金絿가 조광조의 문하에서 덕행이 이루었다고 서술하였다.(고용집, 2016, 『죽봉시문집』, 회상사, 281쪽) 이처럼 조선후기까지 군산 지역 내에서는 김구를 통해 사림정신이 군산 지역에 자리 잡았다고 인식하였다.

히 무인 관료로 전란에 참가하여 전사한 수다한 인물 이외에 의병에 참가하여 전란의 승리로 이끌며 순절한 인물도 적지 않게 배출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내 유학적 기풍을 짐작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무인 관료로 주목되는 인물로는 충청도 수군절도사로 재임하면서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는 등 여러 전투에서 戰功을 쌓은 임피 출신의 崔湖(1536~1597)를 손꼽을 수 있다.[45] 최호 이외에 선조 대에 무과에 급제하여 만호로 재임 중이었던 杜廷蘭(1550~?)과 그의 동생 훈련원 봉사 杜廷莢(?~1592)은 금산 전투에서 분전하다가 重峰 趙憲과 함께 殉節하였으며,[46] 文繼明(1543~1594) 또한 임진왜란 때 병마절도사 安衛와 함께 전라도 순천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다.[47] 이밖에 임진왜란 당시 훈련원 참관이었던 金汝誠(1577~1598), 훈련원 주부였던 姜夢虛(1545~?), 수문장으로 항전한 田永芳(1568~1597)을 비롯하여 高德隆, 金秀淵, 金天祿, 李胤賢 등 군산 출신 무인 관료들은 전란의 최전선에 나가 충의의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며 순절하는 등 지역 내에 충의 정신을 아로새겼다.

무인 관료 이외에 일개 유생에 불과한 여러 인물들도 전란을 맞아 의병에 참가하여 순절하는 등 지역의 충의 정신을 드높였다. 대표적으로 임피 출신의 蔡謙進(1559~1624)은 임진왜란 때 지역 사람들을 규합하여 李敬男을 부장으로 삼아 의병장이 되어 전공을 세웠으며,[48] 옥구 출신 田用灌(1530~1592)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당시 霽峰 高敬命이 기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시 진영이 있던 태인을 찾아가 의병에 합류, 금산 전투에 참가하여 순절하였다.[49]

호란을 비롯하여 혼란한 17세기의 정국 하에서 군산 출신 무인 관료들의 역할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공신으로 책봉된 姜進文(1553~?)[50] 이외에 그의 아우 姜進伯(1565~1624)은 이괄의 난을 평정하

45) 『臨陂邑誌』 卷下, 4b, '忠勳'條.
46) 『沃溝郡誌』 卷2, 3a, '節義'條.
47) 『沃溝郡誌』 卷2, 3a, '節義'條.
48) 『臨陂邑誌』 卷下, 4b, '忠勳'條.
49) 『沃溝郡誌』 卷2, 3b, '節義'條.

는 과정에서 순절하여 공신록에 그 이름을 올렸다. 蔡景俊 또한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 공신으로 녹훈되었다.[51] 이밖에 高彦謙은 정묘호란 당시 호가하여 공신녹권을 받았으며, 潘繼祖 또한 병자호란 때 인조를 호가하는[52] 등 적지 않은 인물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군산 지역에는 뚜렷한 학맥이 부식되기 시작하였다. 1628년 12월 臨陂縣令으로 부임한 愼獨齋 金集(1574~1656)에 의해 기호학맥, 즉 율곡 계열의 학문이 구체적으로 이식된 것이다. 율곡학파의 종장인 沙溪 金長生의 아들이자 당시 기호학계에서 그 영향력이 막대하였던 김집은 불과 8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현령으로 재임했지만, 임피를 중심으로 한 군산 지역에 기호학맥을 부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집의 문인으로 등재된 인물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그가 사망한 후 임피 지역의 유생을 중심으로 그를 추모하는 서원의 창건이 도모되었으며,[53] 1664년 3월에 그와 더불어 金絿를 배향한 鳳巖書院이 낙성되었다.[54] 김집을 봉암서원에 봉안할 때, 당시 율곡학맥의 종장인 尤菴 宋時烈(1607~1689)이 손수 「臨陂鳳巖書院奉安愼獨齋先生文」을 작성하였을 만큼 이 서원의 창건은 군산 지역의 학풍이 기호학맥에 온전히 편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55]

봉암서원의 창건을 전후한 시기부터 군산 지역에서는 율곡 학맥을 계승한 학자들이 적지 않게 배출되었다. 이들은 당시 학계의 중심을 이루었던 예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기호 노론의 정치적 입장과 결부하여

---

50) 『沃溝郡誌』 卷2, 4b, '節義'條.
51) 『臨陂邑誌』 卷下, 4b, '忠勳'條.
52) 『沃溝郡誌』 卷2, 50a, '仕宦'條.
53) 1658년에 임피 유생 黃有直 등 70여 인이 연명하여 呈書를 당시 전라감사에게 보냈고, 전라감사는 장계를 조정에 올려 효종의 윤허를 받았다. 『書院謄錄』, '孝宗 9년(1658) 3월 17일' 기사 참조.
54) 『愼獨齋全書』 卷15, 附錄, 8a~b, 「年譜」 上.
55) 臨陂의 幼學 高萬九 등이 상소를 올려 1694년 '鳳巖'이라고 사액을 받았으며, 이후 지역 유림들은 인조 대에 임피현령을 지낸 滄江 趙涑(1595~1668)을 추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는 한편, 임의로 그를 서원에 추배하였다. 이후 영조 대에 이르러 조속의 위패를 철거하라는 조정의 명이 내려져 조속의 배향은 무위로 돌아갔다. 『書院謄錄』, '英祖 18년(1742) 2월 초5일' 기사 참조.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구체화 하였다. 기호학계 학자로 자정한 군산 출신의 학자로는 먼저 송시열의 문인인 華陰 文道器(1630~?)를 손꼽을 수 있다. 그는 四禮 가운데 疑難處를 상세히 해설한 저술을 남길 정도로 예학에 밝았으며, 특히 익산 출신의 栢峰 鄭祥龍(1643~1709)과 송시열의 伸冤을 상소하여 停擧를 당하는 등 노론 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56] 김장생의 문인인 전주 출신의 洪南立의 학맥을 이은 김제 출신의 竹溪 宋廷耆(1623~1684)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힌 郵峯 申碩輔(1645~1725)은 당시 순찰사 李瑜와 朴世采의 외손인 李匡德으로부터 山中宰相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학문이 탁월하였다고 전한다.[57] 숙종 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좌랑 등 관직을 역임한 魚川 李世賢(1656~1697)의 경우, 寒圃齋 李健命과 二憂堂 趙泰采, 丹巖 閔丙承과 함께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를 청하는 상소를 올릴 정도로 율곡 학맥에 경도되어 있었다.[58]

이들 이외에 17, 18세기에 걸쳐 지역의 유풍을 주도한 인물은 高用楫(1672~1735)이었다. 그의 백부 竹山 高偉(1632~1708)는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인으로 기호학계의 정맥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피 유림들과 함께 봉암서원의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를 주도하였으며, 그의 부친 高佖(?~1699) 또한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하를 넘나들며 수학한 인물이었다. 율곡 학맥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가학을 바탕으로 고용집은 임피향교와 봉암서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유풍을 진작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서인 노론의 정치적 입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여 서인 가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하였다.[59] 특히 그는 임피로 유배 온 北軒 金春澤(1670~1717)을 위로하며 그와의 인간적 학문적 교유를 두텁게 하는 한편, 선대의 학문과 인연이 있었던 李觀命, 李徽之, 閔鎭遠, 金鎭商 등 당대의 기호학계의 문인 관료들과 교유를 진행하며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구체화 하였다.[60]

---

56) 『沃溝郡誌』 權2, 2a, '遺逸'條.
57) 『沃溝郡誌』 卷2, 2a, '遺逸'條.
58) 『沃溝郡誌』 卷2, 2a, '遺逸'條.
59) 그는 일련의 상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뚜렷이 하였다. 그의 시문집인 『죽봉시문집』에는 봉암서원의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를 비롯하여 12편의 상소가 실려 있다.

18세기에 접어들어 기호학계에서 호락논쟁이 가열되면서 군산 지역은 호론의 학풍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낙론 계열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학풍이 조성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61] 일찍이 송시열의 영향력이 작지 않았던 이전 시기의 지역 내 학문을 배경으로 하여 南塘 韓元震의 학문적 입장을 계승한 송시열의 5대손인 性潭 宋煥箕(1728~1807)의 학문적 영향력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일찍이 송시열의 성리서를 열독했던 愚堂 高尙旭이 송환기의 문하에 입문한 것을 비롯하여[62] 훗날 최익현이 행장을 찬술하기도 한 松潭 金基德과 自省 黃始澄 등도 그의 문하에 입문하였다.[63] 이밖에도 송환기의 문인인 김제 출신의 畏庵 鄭允喬(1733~1821) 문하에 입문한 申大旭과 스스로 성리설을 익히며 송환기를 사숙한 素行 申大修[64] 등이 이어 배출되는 등 지역 내에서는 호론 경향의 학자들이 다수 배출되었다.[65] 비록 특정한 학맥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성리학에 골몰하며 일정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며 군산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다는 점[66]에서 18세기 후기 이후 군산의 유풍은 기호학계의 학풍을 지역에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60) 17세기 제주 고씨 인물들의 학문 활동 및 고용집의 교유 인물에 대해서는 김승대, 앞의 논문, 129~152쪽 참조.

61) 18세기의 군산 지역 학자들 가운데 명시적으로 낙론 계열 학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19세기 전반기 낙론의 종장이었던 洪直弼의 문인인 仁山 蘇輝冕을 사숙한 申興均이 군산을 배경으로 활동하였고, 임피 지역의 대표적인 유현인 高用楫의 행장을 낙론계 문인학자인 金洛鉉이 작성하였다는 등의 사실에서 낙론계 학풍이 18세기부터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沃溝郡誌』 卷2, 70b, '儒行'條 및 『죽봉시문집』, 「竹峯高公行狀」 참조.

62) 『臨陂邑誌』 卷下, 43a~b, '學行'條.

63) 『臨陂邑誌』 卷下, 44a~b, '學行'條.

64) 『沃溝郡誌』 卷2, 59b, '學行'條.

65) 『沃溝郡誌』 卷2, 59a, '學行'條. 같은 책에 간단한 전기가 소개된 金永河의 경우, 구체적으로 호론 계열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性理에 潛心하여 저서를 남길 정도로 학문적으로 성숙했으며, 그의 행장을 호론 계열의 金福漢이 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김영하도 호론 계열의 학자가 아닌가 추정된다.(『沃溝郡誌』 卷2, 61a, '學行'條)

66) 『臨陂邑誌』 卷下의 '學行'條와 '儒行'條에는 수십명을 상회하는 인물들의 간단한 전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沃溝郡誌』 卷2에도 같은 항목 하에 이 숫자를 뛰어넘는 수다한 인물들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5. 도학 계열 문인의 번성과 유교 문화의 계승

19세기에 접어들어 군산 지역의 유풍은 점증하는 대내외적 모순이 점증하는 가운데 도학 계열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기된 위정척사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주목할 만한 변화가 드러났다. 이전 시기와 달리 19세기 중반 이후 기호학계는 문호 분립과 이에 따른 학파 분화 현상이 가속화하였고, 이에 따라 군산 지역의 유림들은 특정한 학파에 입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 내의 도학적 기풍을 강화하는 한편, 위정척사 및 의병활동에 참여하는 등 유학의 실천 지향적 면모를 부각하였다. 특히 도학 계열 유림들은 전대의 군산 지역 유풍을 정리하고 계승하는 작업에 몰두하여 일정한 성과를 집적하는 등 유교 문화의 수호에 앞장섰다.

19세기 중후반 이후 군산 지역 유림들의 도학 계열 학파로의 입문이 점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한 세대 앞선 시기에 인근의 전주 및 익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仁山 蘇輝冕(1814~1889)과 같은 낙론계 유학자들의 영향력이 발휘되고,[67] 낙론계 종장인 鼓山 任憲晦(1811~1876)의 문인들이 배출되는 등[68] 등 도학 계열 학자들의 영향력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접어들어 도학 계열 문인집단의 종장들이 직간접적으로 군산을 배경으로 활동하였던 것은 도학 계열 문인들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당시 군산항이 어느 지역에 앞서 개항(1899)하여 서양 문물이 급속히 유입되었던 것이 지역 유림들에게는 일정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교 문화의 수호를 위해 도학 계열 학파로의 결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69]

19세기 중반 이후 군산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도학 계열 유학자는 淵齋 宋秉璿(1836~1905)이었다. 그는 그에 앞서 사망한 첫 부인 完山李氏의 묘를 1887년 임피로 이장한 이후, 1891년에 모친의 묘도 임피의 성산으로

67) 田畯基은 소휘면의 문하에서 성리설을 익혔으며, 전우와 밀도 높은 학문 교유를 진행하여 그로부터 磨心齋라는 호를 받기도 하였다. 『沃溝郡誌』 卷2, 61a, '學行'條.
68) 문헌에서 확인되는 임헌회의 문인은 勉齋 任炳鎬을 들 수 있다. 『臨陂邑誌』 卷下, 45a, '學行'條.
69)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하는 등 군산 지역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었고,[70] 1892년부터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자결할 때까지 수시로 임피를 방문하였다. 그는 임피 지역 유림의 요청에 따라 향약을 설치하는 등 지역의 유풍을 진작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으며, 1901년에는 임피의 樂英堂에서 당시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인물인 勉菴 崔益鉉(1833~1906)과 함께 강회를 개최하여 유학의 진흥 이외에 강한 위정척사의 뜻을 지역 유림에게 강조하는 등 위기의 시대를 맞아 유학의 실천적 지향을 전수하였다.

이러한 송병선의 임피 지역 내 활동에 따라 그의 문하에 입문하는 지역 내 유림들이 점증하여 임피뿐만 아니라 옥구에서도 그의 문하에 입문하는 학자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그와 그의 동생인 心石齋 宋秉珣(1839~1912)의 문인록인 『溪山淵源錄』의 「門生錄」에는 束脩의 禮를 갖추고 사제의 연을 맺은 1,100명 문인들의 생년, 본관, 출신지, 처음 대면한 일시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임피 출신 문인은 27명,[71] 옥구 출신 문인은 5명[72]으로 각각 확인된다. 전라도 출신 문인(572명)이 전체 문인에서 52%를 차지하고, 전라도 문인 가운데 임피 및 옥구 출신 문인이 5.6%를 차지한다. 이밖에 문하에 출입하지 않았지만 평소 사숙하는 마음을 가진 인물들이 실린 「尊慕錄」에도 옥구 출신의 문인 1명이 등재된 것을 고려할 때,[73] 연재학파 내에서 군산 지역 문인의 영향이 작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 지역의 연재학파 문인들은 대체적으로 송병선이 임피향약을 설치하던 때에 집중적으로 입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때에 앞서 연재 문하에 입문하는 문인도 적지 않았다.[74] 송병선의 군산 지역과의 인연 이전에

---

70) 송병선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음독자결한 후 그의 문인들에 의해 錦山 星谷에 묘가 마련되었다가 후에 임피 술산리의 부인 이씨와 합장되었다.

71) 임피 출신 연재 문인은 蔡相夏, 沈臣澤, 李億純, 高奎相, 梁錫永, 高炳朝, 李得純, 蔡煥淵, 李權濟, 田芝秀, 李衡純, 盧鳳壽, 李龍純, 李蘭濟, 蔡震默, 柳偉, 李榮來, 梁士永, 李性純, 梁璟永, 梁翰永, 蔡相哲, 高炳淵, 梁昌永, 李導純, 李世濟 등이다. 溪山淵源錄編纂所 編, 1966, 『溪山淵源錄』 上, 鮮和印刷社 참조.

72) 옥구 출신 연재 문인은 李憲濟, 田相式, 徐廷祿, 田年豊, 李重明 등이다. 溪山淵源錄編纂所 編, 앞의 책, 참조.

73) 「존모록」에 등재된 문인은 옥구 출신의 梁義植으로 확인된다. 溪山淵源錄編纂所 編, 앞의 책, 참조.

74) 다른 문인과 달리 梁錫永은 1880년에 연재 문하에 입문하였으며, 李憲濟는 1887년, 高炳朝는 1888

연재 문하로 입문하는 문인이 있을 수 있었던 데에는 송병선과 동시대에 군산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하던 유학자들과의 교유가 있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예학에 밝아 일찍이 지역 유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농서 2권을 저술할 정도로 실학적 풍모를 갖추고 있었던 田昇龍(1807~1856)의 두 아들 田潤成(1824~1901)과 田益成(1833~1907)은 일찍이 송병선 및 송병순과 교유하였다.75) 이렇듯 송병선이 임피와 인연을 맺기 이전에 이들을 통해 송병선의 학문적 위상이 지역 내에 알려졌고, 자연스럽게 군산 지역의 유림들이 송병선 문하로 입문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송병선과 함께 군산 지역에 지속적으로 학문적 영향력을 발휘한 학자는 기호 낙론계 종장인 艮齋 田愚(1841~1922)라 할 수 있다. 전주 출신인 전우는 충청도에서 강학하던 임헌회 문하에 나아가 학문을 익힌 후 충청도를 배경으로 강학 활동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직전 문인을 배출한 기호학계를 대표하는 최후 유학자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국운이 기울어가자 海島로의 은거를 결심하고 1909년 지금의 군산 선유도인 群山島에 정착하여 강학 공간을 마련하고 강학 활동에 전념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군산 旺嶝島로 이거하여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2년 부안의 계화도로 이거하기 전까지 군산도와 왕등도를 오가며 강학 활동을 전개한 전우의 문하에는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입문하였고, 이때 군산을 지역적 배경으로 하는 다수의 문인들이 간재 문하에 입문하였다.

전우의 문인록인 『華嶋淵源錄』의 「觀善錄」, 「及門」, 「尊慕錄」에는 위로는 북간도부터 아래로는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수다한 문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전우에게 집지의 예를 행한 문인의 명단이 실린 「관선록」 이외에 문하에 들어와 수업을 했지만 집지의 예를 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집례를 행하고 仕籍

년에 각각 입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입문 시기를 고려할 때 이들에 의해 임피 지역 내 연재 문인들의 규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75) 『沃溝郡誌』 卷2. 52a, '仕宦'條. 전윤성은 敦寧府 都正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 『性理講說』과 『記聞錄』을 남겼다. 전익성과 함께 귀향하여 각각 후학 양성을 위해 追慕齋와 花峯齋를 건립하고 강론에 몰두하였다. 이 재실에는 송병선과 송병순 뿐만 아니라 최익현의 기문이 남겨 있다.

에 돌아간 문인들의 명단이 수록된 「급문」의 문인을 포함하면 간재학파 문인 숫자는 2,300여 명을 상회한다.[76] 그 가운데 군산 지역 문인은 13명으로 확인되며,[77] 「존모록」의 문인 6명을 포함하면 2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더구나 이들 문인 이외에 재전 문인에 해당하는 「私淑錄」에 수록된 문인이 20명[78]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전우의 학문적 영향은 20세기 중반 이후까지 지속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79] 특히 군산 지역의 간재학파 문인들은 간재와 지속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그의 학문을 계승하고자 하였다.[80] 대체적으로 전우의 처세를 따라 은인자중하면서 후학 양성과 학문 탐구에 힘을 기울였으며,[81] 전우 또한 이들의 학문적 질정과 처세에 대한 질정에 대해 일일이 자문하였으며, 특히 군산 지역의 유교 문화 계승 작업에 자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82]

최익현 또한 군산 지역 유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송병선이 개최한 임피 낙영당의 강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군산 지역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최익현은 이후 군산 지역 유림들과 지속적으로 교유하며 자신의 영

76) 간재학파 문인 분포에 대해서는 박학래, 2007, 「간재학파의 학통과 사상적 특징」, 『유교사상연구』 제28집 참조.

77) 「관선록」에 등재된 옥구 출신 문인은 田宅燁, 文泰煥, 文泰益, 杜必秀, 杜炳敎, 文宰錫, 金奎煥, 姜漢碩, 杜景秀이며, 왕등도 출신은 盧準相, 徐丙玉, 盧賢相이다. 「급문」에 등재된 문인은 田相秀이다. 이밖에 문하에 들어와 가르침을 청한 적은 없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모한 문인이 등재된 「존모록」에 등재된 옥구 출신 문인은 田禎彦, 田潤成, 高光浩, 金在洪, 杜炳項, 李相軒 등이다. 李道衡, 1962, 『華嶋淵源錄』, 重川書室 참조.

78) 『화도연원록』의 「사숙록」에는 盧澈秀 문인 1명, 崔秉心 문인 11명, 이병은 문인 1명, 송기면 문인 1명 등 총 14명이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최병심의 문인록인 「玉山淵源錄」에는 군산 출신 문인 16명, 송기면의 문인록인 「蓼橋精舍講學錄」에는 2명이 각각 등재되어 재전 문인의 수는 20명으로 집계된다. 「옥산연원록」 및 「요교정사강학록」의 문인에 대해서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편, 2015, 『호남삼재 문인록』 참조.

79) 전우의 고제 중 한 사람인 최병심은 『竹峯集』 간행 당시에 서문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군산 지역 문인들과 교유하였다.

80) 『艮齋集』을 확인한 결과, 군산 지역의 간재학파 문인들은 예외 없이 전우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내어 학문 및 처신에 대한 내용을 질정하였고, 이에 대해 전우는 답신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하였다. 『간재집』에 수록된 군산 지역 문인에 대한 전우의 답신은 20여 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들과 전우의 학문 수수는 지속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81) 杜景秀와 杜必秀의 『工溪淸齋兄弟遺稿』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문인들이 저서를 남길 정도로 학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82) 전우는 봉암서원에 「臨皮鳳巖書院 賜額祭文」(『艮齋集』 卷7)을 보내 金集과 金緑에 대한 존경의 뜻을 피력하는 등 군산 지역의 유풍 진작에 관심을 기울였다.

향력을 확대하였다.[83] 지역 유림들의 청에 따라 지역 선현들의 행장을 찬술하는 한편, 지역의 젊은 유생들을 문하로 받아들여 군산 지역에 적지 않은 문인을 배출하였다.[84]

특히 군산 지역의 최익현 문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그와 함께 의병활동의 선봉장으로 나선 인물이 배출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대표적인 문인인 군산 출신 遯軒 林炳瓚(1851~1916)은 1906년 2월 최익현과 함께 태인의 武城書院에서 의병을 일으켜 대마도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후, 1912년 독립의 군부 전라남북도 순무대장을 맡아 의병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다가 결국 거문도로 유배되어 사망하였다. 최익현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된 그의 의병활동에는 군산 지역의 유림인 金德長, 李俊榮, 高奉玟, 田耕寅, 田五豊 등이 함께 하였다는 점에서 최익현의 군산 지역에 대한 영향은 성리학 학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의리 정신의 구현이 강하게 투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85]

이처럼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군산 지역의 유학적 기풍은 도학 계열로 편입하는 유림들이 점증하면서 제국주의에 맞서 저항적 민족주의를 발양하는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20세기 초반 의도치 않게 일제에 의해 간행된 『朝鮮神社大同譜』에 그 이름을 등재한 유림도 없지 않았지만,[86] 대체적으로 도학 계열로 자정한 군산 지역의 유림들은 저항적인 기조를 유지

83) 최익현은 19세기 군산의 대표적인 유현인 文正學의 行狀을 찬한 것을 비롯하여 文昌炫(1811~1888)의 묘표(「愼菴文公墓表」, 『勉菴先生文集』 卷34)를 지었으며, 군산 유학자 田潤成과 田益成 등과도 교유하였다.

84) 『沃溝郡誌』 卷2의 '師生'條에 수록된 최익현의 문인은 文鍾覺 뿐이다. 하지만 화서학회에서 정리한 「蘗溪淵源錄」에 따르면, 문종각 이외에 文思澈, 文鍾擧, 文鍾龜, 林炳瓚 등도 최익현의 문인으로 확인된다. 이밖에 『詩海集』을 남긴 杜宰杓, 일제의 은사금을 물리친 것으로 알려진 田潤杓, 奇正鎭 사후에 蘆沙學派를 이끈 奇宇萬의 문하도 넘나든 것으로 전해지는 趙秉哲 등 다수의 군산 지역 유림들이 최익현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힌 것으로 전해진다.

85) 최익현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군산 출신의 李容珪(1859~?)도 그의 매부이자 홍주 의병을 이끌었던 의병장 閔宗植과 함께 의병 활동의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86) 『朝鮮神社大同譜』는 1913년 일본인 大垣丈夫의 주도로 편찬된 일제 초기 조선인 저명인사 인명록이다. 이 책에는 왕족 5명과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귀족 61명을 위시하여 156개 성씨별로 전국에서 여론주도층에 해당하는 인사들을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효자, 열녀, 夫人부를 두어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군산 지역의 유림도 몇몇 등재되어 있다. 여기에 등재된 인물들이 친일은 아니더라도 일제의 조선 지배에 순응하는 인사들이었다는 세간의 평가에 주목할 때 도학 계열 유림들의 면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며 유교 전통을 계승하고 수호하는 데 앞장섰다. 당시 군산 지역 유림들은 대원군에 의해 훼철된 廉義書院(1920)을 복설하는 한편, 山仰祠(1922), 淄東書院(1927), 玉山書院(1929), 雪林祠(1933) 등 서원과 사우가 차례대로 신설하였다.[87] 특히 신설된 서원과 사우에 배향된 인물이 지역 유현과 국난 극복에 힘쓴 선현이었다는 점에서 원우의 복설과 신설은 지역 유교전통의 계승 의지와 저항적인 민족정신의 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 도학 계열 군산 유림들은 원우의 복설과 신설 이외에 지방지의 간행을 통해서도 지역의 유교 문화를 확인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뜻을 구체화하였다. 1921년 상하권 2책으로 간행된 『임피읍지』는 당시 임피향교의 都有司를 맡고 있던 송병선의 문인 高奎相의 주도로 편찬이 이루어졌으며, 1921년에 4권 4책으로 간행된 『옥구군지』 또한 당시 옥구향교의 都約長이었던 田相元을 위시하여 文鍾龜, 文鍾擧 등 송병선의 문인들과 申彦德, 田宅燁 등 전우의 문인, 그리고 金德長, 文鍾擧, 文鍾覺 등 최익현의 문인 등이 주도하여 간행되었다.[88] 이러한 전통의 유교 문화에 대한 정리와 계승 작업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1948년 전우의 고제인 崔秉心(1874~1957)의 서문을 담은 『臨피교지』가 高琪煥의 주도로 간행되었으며, 『옥구군지』도 1963년 재차 간행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편, 20세기 초반 군산 지역의 유풍은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개신유학적 흐름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국권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교육의 도입과 함께 산업 진흥이 급선무라고 파악한 애국계몽기의 주요 인사들에 의해 주도된 학회의 조직이 호남에도 진행되어 '湖南學會'가 1907년 창립되었고, 이때 옥구와 임피, 그리고 군산의 유림 가운데 개신유학적 흐름에 동참하는 인사들이 이 학회에 참여하였다.[89] 이에 따라 호남학회의 주요 인사들은 군

87) 윤선자, 2007, 「일제하 호남지역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 『한중인문학연구』 22 참조.

88) 도학계열 유림들이 주도하여 간행한 『임피읍지』와 『옥구군지』는 이후 일제에 의해 간행된 『群山府史』(群山府, 1935)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 지배의 합리화를 기저로 하여 간행된 『군산부사』에 대해 최근 군산시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번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지방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89) 박찬승의 연구에 따르면, 호남학회 회원 중 군산 출신은 尹相五, 蔡奎世이며, 옥구 출신은 姜道翊,

산에서 강연회를 열고 자강운동, 특히 신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군산 지역민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90] 20세기 초반 전북의 어느 지역에 앞서 군산에 今湖學校, 군산사립보통학교 등 사립학교가 건립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의 역할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유교 윤리의 착근과 확산

고려 중반부터 향촌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군산 지역의 유교 전통은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 주목할 만한 여러 유학자를 배출하며 그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호남의 어느 지역과 비견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일찍부터 절의적 유풍이 자리 잡았으며, 이후 비록 조선 성리학의 흐름을 주도한 유학자를 배출하지는 않았지만, 조선 성리학의 흐름과 궤를 함께 하며 유교 문화가 뿌리를 내렸다. 특히 사림정신의 이식 이후 김집의 임피현감 부임을 계기로 기호 학맥이 구체적으로 부식됨으로써 율곡의 학풍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위정척사와 의병 활동으로 이어지는 도학 계열 학맥으로의 입문이 점증하면서 보다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여말 선초 이후 군산 지역은 어느 지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유교 전통이 뿌리내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임피읍지』(1921)와 『옥구군지』(1924)의 인물 편에 실린 1천 5백여 명을 상회하는 인물의 행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91] 특히 주목되는 것은

康璂昇, 林昌燮, 邊基纘, 趙秉承, 임피 출신은 宋琦憲, 梁在煥, 李公植, 李寬植, 李種謙, 田龍鎭, 尹相五, 蔡奎世, 蔡宗默, 韓在敎 등이다. 이 가운데 尹相五는 대한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했으며, 대합협회 산하의 군산지회가 꾸려지기도 하였다. 박찬승, 1994, 「한말 호남학회 연구」, 『국사관논총』 53, 153쪽.

90) 박찬승, 앞의 논문, 141쪽.

91) 『임피읍지』에는 506명, 『옥구군지』에는 1,034명의 간단한 전기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일부 중복되는 인물을 감안한다고 해도 1천5백 명을 상회하는 유교적 지식인 내지 관련 인물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군산 지역의 유교 전통은 주목할 만한다고 할 수 있다. 조금 이른 시기에 간행된 『완산지』(1911)에 1,192명(김철배, 2011, 「〈완산지〉 인물조 검토」, 『건지인문학』 6)의 유교

향촌 사회의 운영 원리 중 하나인 충효의 실천이 어느 지역보다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일부 겹치는 인물도 확인되지만, 두 지방지의 '忠勳' 條에는 총 30명의 인물(『임피읍지』 16명, 『옥구군지』 14명)이 보여준 행적이 수록되어 있으며,[92] 18세기에는 전란의 위기를 막아내는 데 기여한 지역의 선현을 모시는 충의사, 현충단 등이 건립되어 충의의 기풍을 뿌리내렸다.[93]

'孝子' 條에는 243명(『임피읍지』 155명, 『옥구군지』 88명[94])의 인물이 이름, 가문, 그리고 주요 행적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도 두 지방지에는 '孝婦' 및 '烈婦' 條를 통해 170명(『임피읍지』 118명, 『옥구군지』 52명[95])의 행적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두 지방지에는 이른바 지배 계층에 속하는 양반층 이외에 무녀와 노비들의 효열행도 기록하여 유교의 윤리강상이 전 계층에서 고르게 준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96] 더구나 이러한 효열행에 관한 기록은 이 시기에 갑자기 돌출한 것이 아니라 16세기 초반에 편찬된 官撰 地理志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확인되는 듯이 1490년대에 이미 旌門을 세워진 吳孟根, 崔云孫, 姜克禮 등의 효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유교의 윤리강상이 일찍부터 지역 내에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97]

유교 전통과 관련하여 군산 지역의 효열행이 주목되는 것은 15세기부터 배출된 지역 내의 효열행 인사들의 행적이 지역 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 인물이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92) 군산 지역의 충훈에 대해서는 2장 3절에서 서술한 '忠義의 실현과 畿湖學脈의 移植' 부분 참조. 이 부분에서 서술한 인물 이외에도 20세기 전반기까지 군산 지역에서는 국가적 위난을 극복하는 데 헌신한 인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였다.

93) 忠義祠는 왜란 중 전사한 최호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1729년 건립되었으며, 이후 그의 부친 최한정, 그의 아들인 최몽란, 그의 손자인 최효섭의 위패를 함께 봉안하였다. 賢忠壇은 1764년 최치원, 이건명, 조태채를 배향한 三賢祠에서 출발하여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중수된 후 1927년 최익현이, 1964년 임병찬이 추가 배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94) 『옥구군지』에는 효자와 관련한 조목을 '효자'와 '정려효자'로 구분하여 각각 74명, 14명을 수록하고 있다.

95) 효우 및 열부에 대해서도 『옥구군지』는 조목을 '효부', '정려효부', '정려열부'로 구분하여 각각 10명, 35명, 7명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96) 『임피읍지』와 『옥구군지』에는 良人인 鄭貴仁 및 私婢 牧丹의 효행과 노비 石非와 무녀 金丹의 烈行을 기록하고 있다.

9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4, 「沃溝縣」 및 「臨陂縣」 기록 참조.

『東國新續三綱行實圖』 중 「士堅割股」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광해군 대에 유교 윤리의 보급과 실천을 위해 간행한 『東國新續三綱行實圖』(18권 18책, 1631년)에는 임피 출신의 鄭士堅이 보여준 효행을 그림과 함께 그 내용을 수록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환 중인 모친의 쾌유를 위해 割股한 정사견이 서모 봉양뿐만 아니라 부친의 병환을 위해 거듭 할고한 효행이 조정의 주목을 받아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군산 지역 내에 유교적 기풍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충훈 및 효열행 이외에도 군산 지역에서는 지역 내에 세거한 여러 문중에서 건립하여 운영한 齋室을 중심으로 제례의 준행이 보편화되기도 하였다. 진주 강씨 재실인 永慕齋를 위시하여 평강 채씨의 永慕堂, 제주 고씨의 永慕齋, 두릉 두씨의 追感齋, 평산 신씨의 敬慕齋 등 군산의 대표적인 문중의 수다한 재실이 세워져 조상에 대한 제례가 엄수되었으며, 유교 윤리의 저변화를 이끄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임피와 옥구를 포함한 군산 지역 내에 유교 윤리가 강화되고 확산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일찍부터 조성된 관학 교육 기관인 향교의 역할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이후부터 군산 지역 내에 건립되기 시작한 서원에 앞서 지역의 유풍을 진작하고 유교 윤리의 보급에 기여한 구심점은 태종 때에 건립된 옥구향교와 임피향교였다. 지역 유림들은 일찍부터 향교를 중심으로 강학에 전념하면서 유교 윤리의 보급과 실천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20세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98] 물론 지역 내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鳳巖書院과 이후 건립되어 사액을 받은 廉義書院에 이어

文昌書院, 玉山書院 등이 차례로 건립되어 지역의 유풍 진작에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두 기관은 대립적인 면모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유교 전통의 착근과 확산에 기여하였다.[99]

이밖에도 특정 유림의 강학 공간도 군산 지역 내에 다수 분포하면서 강학 활동은 물론 유림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우가 群山島에 安養書室을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花峯齋, 野寓堂, 眞山精舍 등 수다한 강학 공간이 20세기 전반기까지 건립 운영되어 후학 양성의 중심이자 유교 기풍 진작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군산 지역은 일찍부터 유교의 윤리강상이 부식되고 확산되어 어느 지역 못지않은 유교 전통이 뿌리를 내렸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절의 정신이 일찍 뿌리를 내린 만큼 충훈으로 대표되는 다수의 인물을 배출하며 지역의 정신을 꽃 피웠으며, 효열행의 확산은 유교의 윤리강상이 그만큼 저변화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교 전통의 중심에는 향교와 서원 등 강학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7. 맺음말

그동안 군산의 유교 문화 전통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연구가 없지 않았지만, 그 관심은 제한적이었고 그 성과도 미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군산 지역은 일찍부터 유교 전통이 자리 잡았고, 그 내용이나 위상이 결코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지 않았다. 여말선초 성리학의 흐름을 주도한 이색, 정몽주, 그리고 길재와 어깨를 나란히 한 고용현 등 주목할 만한 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사림

98) 『옥구군지』 권3에는 향교 건물의 건립 및 중수 등 향교 운영과 관련한 수다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향교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된 지방지이기 때문에 이런 글이 수록된 것이기도 하지만, 향교가 지역의 유풍 진작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 논자의 판단이다.

99) 대체적으로 군산 지역의 유림은 향교와 서원을 오고가며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김승대, 앞의 논문, 139~140쪽 참조.

정신의 이식을 통해 강한 절의 정신과 국가적 위난을 극복하는 정신적 원동력이 자리한 곳이 군산 지역이었다. 이기심성론과 예학, 그리고 호락논쟁 등 조선성리학의 흐름을 주도하는 학자들이 배출되지는 않았지만, 기호학파의 정맥을 계승한 김집 등 여러 유현의 영향 속에서 조선 성리학의 주요 흐름에 참여하는 등 중심부 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많은 도학 계열 문인들을 배출하며 도학파 유학자들의 활동 거점 중 한 곳이 군산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군산 지역의 유교 전통은 19세기 중반 이후 보다 강화된 양상으로 그 흐름을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일찍부터 조성된 유교 윤리강상의 착근 및 확산이 20세기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군산 지역은 단순히 물산의 유통지이거나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점에만 주목한 지역의 이해는 이러한 문화 전통을 간과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과 결을 같이 하며 면면히 이어져 온 군산의 유교 전통은 그 자취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유교 문화와 관련한 유물에 대한 관심과 보존은 차치하더라도, 군산을 넘어 호남 유학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의 행적이나 사상은 일반인은 물론, 연구자들의 시선에서도 빗겨나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성된 이른바 근대문화유산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일찍부터 조성된 저항 정신이 발현되어 구체화된 이 시기 문화 전통의 집산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제에 조성된 적산 가옥은 문화재로 보호받고 일제의 의해 간행된 지역의 근현대사는 지방재정이 투입된 번역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같은 시기 지역의 유구한 문화 전통을 집산한 지방지를 비롯한 유교 관련 문화유산은 박물관의 유물로만 전시될 뿐 그 내용에 대한 실체적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고가 향후 군산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하고 체계적인 지역 문화 인식에 다가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전체적인 조망에 그친 본고가 향후 주제별 시대별 등 여러 방향에서 체계적인 연구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아울러 전통 시대에 대한 지역민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투고일 : 2019. 3. 7. 심사완료일 : 2019. 5. 6. 게재확정일 : 2019. 5. 10.

[참고문헌]

溪山淵源錄編纂所 編, 1966,『溪山淵源錄』, 鮮和印刷社.
高奎相, 1921,『臨陂邑誌』, 臨陂鄕校.
高用楫, 2016,『竹峯詩文集』,「鳳巖書院開基祭文」, 회상사.
金絿, 1988,『自菴集』(韓國文集叢刊 24), 民族文化推進會.
金集, 1989,『愼獨齋全書』, 景仁文化社.
李道衡, 1962,『華嶋淵源錄』, 重川書室.
文鍾擧・姜益善・申彦球, 1924,『沃溝郡誌』, 沃溝鄕校.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1971,『(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2015,『(國譯) 書院謄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宋秉璿, 2004,『淵齋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329), 民族文化推進會.
장삼현, 1999,『蘗溪淵源錄』, 양평문화원.
田愚, 1984,『艮齋先生全集』, 保景文化社.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편, 2015,『호남삼재 문인록』,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
崔益鉉, 2004,『勉菴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326), 民族文化推進會.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80,『(國譯) 冶隱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희진, 2018,「1920년대 초 군산사회와 교육운동」,『전북사학』54.
김두헌, 2010,「제주 고씨의 옥구 입거와 이후의 거주지 이동」,『전북사학』36.
_____, 2013,「平康 蔡氏의 臨陂 入居와 入居 이후의 거주지 이동」,『東洋學』53.
김승대, 2018,「죽봉 고용집의 가계 분석과 교유 인물」,『전북사학』52.
김용헌, 2016,「야은 길재의 두 가지 표상」,『한국학논집』65.
김철배, 2011,「〈완산지〉 인물조 검토」,『건지인문학』6.
박경목, 2001,「연재 송병선의 학맥과 민족운동」,『대동문화연구』39.
박찬승, 1994,「한말 호남학회 연구」,『국사관논총』53.
박학래, 2007,「간재학파의 학통과 사상적 특징」,『유교사상연구』제28집.
오석원, 1992,「易東 禹倬의 생애와 사상」,『禹倬 先生의 思想과 易東書院의 歷史』, 안동대학교.
윤선자, 2007,「일제하 호남지역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한중인문학연구』22.

The Confucian tradition and its characteristics of Gunsan Area

Park, Hak-rae*

Gunsan tries to draw studies on Gunsan along with the trend of local studies to establish local identities by newly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s of local regions. However, studies on Gunsan have been strengthened by focusing on modern culture being accelerated after opening a port while diverse cultural traditions unfolded in the pre-modern era had not relatively been boomed among current researchers. Gunsan was quiet early on where various cultural heritages have been settled down. It has been where Confucian tradition, which is comparable to other regions of Honam, is rooted since Joseon period. Therefore, in order to define cultural identity of Gunsan and to culturalize it again, we need to deepen an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era by expanding interests in modern culture.

In fact, it is hard to say that there are overall researches on Confucian tradition of Gunsan area in traditional period. This paper will survey what characteristics of Confucian tradition in Gunsan area are, and how it had been formed and unfolded within historical context by referring to some precedent researches on the topic, which is limited though. This paper will represent the realities of contents by examining local gazettes and other texts published by local Confucian scholars under the colonial rule of Japan in early 20 century. By surveying Confucian tradition of Gunsan area, I will hold that Gunsan is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and Philosophy[Philosophy Maj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where not only is Confucian culture rooted from early on, but also its influence is quite powerful in the region. Moreover, I will set up the foundation to rectify the understanding of Gunsan, which is biased toward modernization.

Key Words : Studies on Gunsan, Gunsan, Okgu, Impi, Confucian Tradition, Local Community

KCI